

사물인터넷시대에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조직패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장원¹, 장대연^{2*}

¹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²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수로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in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in the era of IoT

Jang-Won Choi¹, Daeyeon Jang^{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Management at TongMyong University

²Ph. D candidate, Graduate of Social Welfare at Yo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236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고, Amos ver. 22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스트레스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녀의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안정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제어 : 장애아동 가족, 양육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가족조직패턴, 양육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A total of 263 participa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responding to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Parenting Stress Index(PSI), Family Resilience Scale, Parenting Efficacy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2.0.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amily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enting stress, family resilience,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parenting efficacy

*교신저자 : 장대연(daeyeon@yonsei.ac.kr)

접수일 2022년 4월 3일

수정일 2022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22년 5월 22일

1. 서론

인터넷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과 충격적인 경험은 아마도 자녀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고, 사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다[1].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을 하는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변화할 수 없다는 단호하거나 비효율적인 반응을 하거나 장애 진단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2].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가족성원의 전반적인 삶을 바꿔놓거나 가족의 기능을 흔드는 사건으로 여기며,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가족들은 양육에 대한 많은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3]. 장애아동의 부모는 비장애아동의 부모에 비해서 더 많은 가족 간 갈등, 스트레스, 우울감을 경험한다[4]. 더욱이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장애아동의 발달 지연 등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스트레스, 장애아동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6]. 양육효능감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이기 때문에[7],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변인으로써 가족탄력성이라는 변인에 주목을 하고 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 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나 부담을 줄이거나 시련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8], 가족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적 및 관계적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포함한다[9]. 가족탄력성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써[10],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의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탄력성 중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서 통합된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조직패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위기와 적응에 관해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양육스트레스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기울여야할 노력이 비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2].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양육만족도, 학대 행동[13], 그리고 불안정한 아동 애착[14]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장애아동의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의 종류는 신체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불면증, 소화불량이나 두통이 있으며[15], 정신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슬픔, 분노, 우울, 좌절 등이 있다[16].

2.2 가족조직패턴

가족탄력성은 심각한 역경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며[17], 만성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가족의 적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8]. 이러한 장점과 자원을 통해 개인과 가족은 위기와 지속적인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18]. 해외연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이 성공적인 가족 적응을 할 수 있는 핵심동력으로 가족탄력성을 제시하였고,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장애아동과 비장애 가족구성원들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가족 경계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19].

이러한 가족탄력성은 조직패턴과 가족 신념체계, 의사소통 과정으로 구분되며, 가족 조직패턴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서 통합된 정도를 의미한다. 가족 조직패턴은 유연성, 응집력, 가족자원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0].

2.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능하고 효율적인 양

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판단하며 생기는 자신감[21]으로 장애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심리적 기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인지와 평가는 양육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인지 및 평가요인을 양육효능감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4 양육스트레스, 가족조직패턴, 양육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경우 개인 자원과 사회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22]. 가족의 심리적 자원 중 하나이며 위기와 도전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의 자원 중 하나인 가족탄력성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다[11].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에 기반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특히, 가족 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최현정(2007)이 보고한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탄력성의 하위 차원 중 조직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내용을 종합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조직패턴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경기도와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 23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EM 알고리즘 대체방식[25]을 통해서 대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는 여자 210명(89.0%), 남자 26명(11.0%)이었다. 종교 유무는 있다가 137명(58.1%), 없다가 97명(41.1%) 이었고,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상 107명(45.3%), 대학교 졸업이상 106명(44.9%), 중학교 졸업이상 12명(5.1%), 대학원 이상 8명(3.4%), 초등학교 졸업이상 2명(0.8%)순이었다. 현재 결혼 상태는 기혼이 213명(90.3%), 이혼 및 별거 11명(4.7%), 사별 5명(2.1%) 순 이었고, 가족의 월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인 72명(30.5%), 100~200만원 미만인 41명(17.4%), 300~400만원 미만인 36명(15.3%)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6)

Variables		N(%)
Sex	Female	210(89.0)
	Male	26(11.0)
Religion	Have	137(58.1)
	No Have	97(41.1)
	Etc.	2(0.8)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8(3.4)
	University or College	106(44.9)
	High school	107(45.3)
	Middle school	12(5.1)
	Elementary school	2(0.8)
	Etc.	1(0.4)
Marital status	Matrimony	213(90.3)
	Divorce and Separation	11(4.7)
	Bereavement	5(2.1)
	Etc.	7(3.0)
Family monthly income	Upper ₩5,000,000	34(14.4)
	₩4,000,000 - ₩5,000,000	26(11.0)
	₩3,000,000 - ₩4,000,000	36(15.3)
	₩2,000,000 - ₩3,000,000	72(30.5)
	₩1,000,000 - ₩2,000,000	41(17.4)
	Under ₩1,000,000	13(5.5)
	Etc.	14(5.9)

조사에 참여한 장애아동과 아동의 보모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2>와 같다. 장애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113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103명(43.6%), 셋째가 11명(4.7%) 순이었으며, 장애 아동의 성별은 남

자가 155명(65.7%), 여자가 81명(34.3%)이었고, 장애 진단명은 지적장애가 134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30명(12.7%), 뇌병변장애 26명(11.0%), 자폐 성장애 24명(10.2%), 발달장애 19명(8.1%)순이었고, 장애등급은 1급이 120명(50.9%), 2급이 83명(35.2%), 3급이 25명(10.6%)순이었다. 장애아동의 예후에 대한 생각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다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가 178명(75.4%), 앞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가 43명(18.2%), 더 나빠질 수 있다가 14명(5.9%) 순이었다. 장애자녀의 양육이 삶의 귀한 경험의 기회라고 인지하는 경우는 보통이다가 91명(38.6%), 자주 그렇다가 85명(36.0%), 항상 그렇다가 32명(13.6%) 순이었다. 자녀의 장애 수용 정도는 대체로 수용한다가 168명(71.2%)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 수용한다가 32명(13.6%), 그저 그렇다가 26명(11.0%) 순이었다.

<Table 2> Basis information of Partici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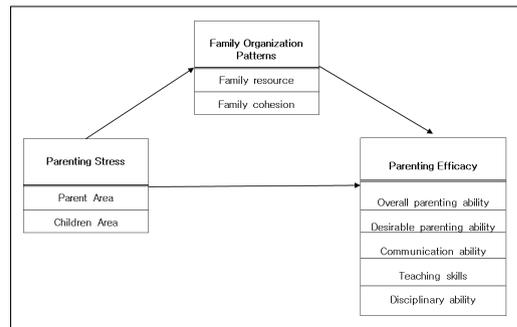
(N=236)

1. Basis inform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irth order	Firstborn	113(47.9)
	Second	103(43.6)
	Third	11(4.7)
	Fourth	6(2.5)
	Etc.	3(1.3)
Sex of child	Male	155(65.7)
	Female	81(34.3)
Types of disability	Mentally challenged	134(56.8)
	Autism spectrum disorder	24(10.2)
	Developmental disability	19(8.1)
	Encephalopathy	26(11.0)
	Auditory disorder	30(12.7)
Etc.	3(1.2)	
Disability grade	Grade 1	120(50.8)
	Grade 2	83(35.2)
	Grade 3	25(10.6)
	Etc.	8(3.4)
2. Parents' perceptions of children's disabilities		
Prognosis	It can get better enough	43(18.2)
	It can be somewhat better	135(57.2)
	It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43(18.2)
	It may get worse	14(5.9)
	Etc.	1(0.4)
Parenting is a valuable experience	I've never thought about it	4(1.7)
	I've hardly thought about it	15(6.4)
	I've a little thought about it	91(38.6)
	I've often thought about it	85(36.0)

	I've always thought about it	32(13.6)
	Etc.	9(3.8)
Acceptance of disability	Very Acceptable	32(13.6)
	Generally	168(71.2)
	Ordinary	26(11.0)
	Barely	9(3.8)
	Etc.	1(0.4)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조직패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실증연구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tudy model

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조직패턴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3 측정도구

3.3.1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26]이 개발하고 이한우[27]가 재구성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아동 영역 12문항과 부모영역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한우[2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아동영역 .79, 부모영역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아동영역 .85, 부모영역 .90으로 나타났다.

3.3.2 가족조직패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가족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Walsh[2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9]이 수정 및 보완한 가족조직패턴 문항 중 가족자원과 가족응집력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가족자원 20문항, 가족응집력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조직패턴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미옥[2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9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3.3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과 정옥분[30]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반적인 양육능력 11문항, 의사소통능력 9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학습지도능력 6문항, 훈육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형성과 정옥분[3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파악하였다. 셋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를 확인하는 동시에 CFI, TL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는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에서 .10 수준은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해석되며(MacCallum et al., 1996), SRMR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31].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32].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0.40~1.12 첨도는 0.01~3.86으로 West, Finch와 Curran[33]이 제시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인 왜도 절대 값 3미만과 첨도 4점 미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and SD of main variables (N=236)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2.70	0.63	-0.32	0.17
Parent Area	2.54	0.62	0.11	0.13
Children Area	2.85	0.73	0.30	0.02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3.20	0.40	-0.26	0.62
Family resource	1.63	0.21	0.02	0.61
Family cohesion	3.59	0.54	1.12	3.86
Parenting Efficacy	3.34	0.47	-0.03	-0.19
Overall parenting ability	3.13	0.56	0.24	0.09
Desirable parenting ability	3.44	0.54	0.15	0.04
Communication ability	3.50	0.58	-0.25	0.22
Teaching skills	3.24	0.62	-0.40	0.19
Disciplinary ability	3.52	0.62	-0.17	0.01

*** p<.001

4.2 측정모형 검증

구조(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내에 포함된 잠재변인들에서 하위요인이 존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4) = 81.881, p < .001, CFI = .95, NFI = .93, TLI = .92, RMSEA = .10, SRMR = .04$).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 .71~.93으로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적합성을 나타내며,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Measurement Model Verification

	Variables	N-SC	SE	SC	CL
Parenting Stress	→ Parent Area	1.00	-	.88***	.93
	→ Children Area	1.22	.07	.86***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 Family resource	1.00	-	.93***	.80
	→ Family cohesion	1.66	.24	.62***	
Parenting Efficacy	→Overall parenting ability	1.00	-	.71***	.95
	→Parenting ability to raise sound children	0.99	.10	.73***	
	→Communication ability	1.24	.10	.85***	
	→Teaching skills	1.21	.11	.78***	
	→Disciplinary ability	1.07	.11	.69***	

** p<.001

(N)SC= (Non)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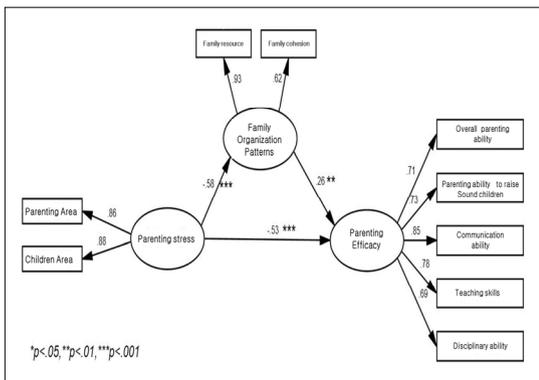
CL= Confidence Level

4.3 구조모형 검증

<Table 5>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Paths	N-SC	SE	SC
Parenting Stress	→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22	.03	-.58***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 Parenting Efficacy	.53	.18	.26**
Parenting Stress	→ Parenting Efficacy	-.40	.07	-.53***

** p<.01, *** p<.001



[Fig. 2] Study model

구조(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그림2>와 같이 구조(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모형 내 직접경로들

의 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양육스트레스에서 양육효능감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3, p<.001$), 양육스트레스에서 가족조직패턴으로 향하는 경로의 경우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8, p<.001$). 가족조직패턴에서 양육효능감으로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6, p<.01$).

마지막으로, 가족조직패턴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32]가 제안한부트스트래핑 기법(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족조직패턴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7~.28로서 그래프 곡선 방향이 일정하고,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조직패턴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시사하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Mediated(Indirect) Effect Bootstrap Results

Paths	Indirect effect	SE	BC 95% CI
Parenting Stress → Family Organization Patterns → Parenting Efficacy	-.12	.04	-.20 ~ -.04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 가족에서 가족역량의 설명 및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 그리고 가족탄력성 중 가족조직패턴의 매개적 영향에 관하여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의 부정적 영향력은 양육효능감과 가족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때 가족조직패턴에 의해 중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가족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자원과 가족응집력과 같은 가족조직패턴의 향상을 통해 장애아동가족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 가족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세부적인 검증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 부양에서 주요 스트레스원인 부양스트레스는 가족자원인 조직패턴, 인지 및 평가요인인 양육효능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자원과 인지 및 평가요인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인 가족요구와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자원과 인지 및 평가요인인 양육효능감, 조직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녀의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안정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R.S.Marvin and R.C.Pianta,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s Diagnosis: Relations with Security and Attach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5, No.4, pp.436-445, 1996.
- [2] L.H.Falik, "Family Patterns of Reaction to a Child with a Learning Disability: A Medi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28, No.6, pp.335-341, 1995.
- [3] S.Y.So, and C.N.Son, "Effects of Positive-Psychotherapy on Depressi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1, No.2, pp.95-107, 2013.
- [4] M.Viesson, "Depression Symptoms and Emotional States in Parent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7, No.1, pp.87-98, 1999.
- [5] L.E.Dumka, H.D.Stoerzinger, K.M.Jackson, and M.W.Roosa,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Vol.45, No.2, pp.216-222, 1996.
- [6] M.J.Seo, E.J.Chang, C.H.Jung, and S.Y.chei, "The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Mother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8, No.1, pp.69-81, 2003.
- [7] E.S.Hong,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50, No.2, pp.127-142, 2015.
- [8] J.M.Patterson,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No.2, pp.349-360, 2002.
- [9] P.Boss, *Loss, Trauma, and Resilience: Therapeutic Work with Ambiguous Los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6.
- [10] G.H.Elder Jr, J.S.Eccles, M.Ardelt, and S.Lord,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No.3, pp.771-784, 1995.
- [11] O.K.Yang, Y.S.Kim, and J.Y.Kwon,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1, pp.143-173, 2006.
- [12] S.Y.Cho,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 MA.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Online Source.
- [13] C.Rodriguez, and L.Murphy, "Parenting Stress and Abuse Potential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Needs," *Child Maltreatment*, Vol.2, No.3, pp.245-251, 1997.
- [14] P.A.Jarvis, and G.L.Creasey, "Parental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with an 18-Month-Old Infa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Vol.14, No.4, pp.383-395, 1991.
- [15] E.S.Kim, "A Study on Stress and Social Support," MA.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89. Online Source.
- [16] A.Betovim, "Emotional Disturbances of 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ttitudes to the Child." *British Medical Journal*, Vol.3, No.5826, pp.579-581, 1972.
- [17] S.S.Luthar, D.Cicchetti, and B.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543-562, 2000.
- [18] P.A.Cowan, C.P.Cowan, and M.S.Schulz, "Thinking about Risk and Resilience in Families," pp. 1-38. in *Stress, Coping, and Resiliency in Children and Families*, edited by Hetherington, E. M., & Blechman, E. A. Mahwah, NJ: Erlbaum, 1996.
- [19] J.M.Patterson, "Family Resilience to the Challenge of a Child's Disability," *Pediatric Annals*, Vol.20, No.9, pp.491-499, 1991.
- [20] F.Walsh, "Family Resilience: A Framework for Clinical Practice." *Family Process*, Vol.42, No.1, pp.1-18, 2003.
- [21] D.M.Teti, and D.M.Gelfand,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62, No.5, pp.918-929, 1991.

- [22] Y.H.Lee, "Effect of Parenting Stress Control and Quality of Family Life Improvement Through Participation in Leisure Self-Help Group Program," M.A.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2. Online Source.
- [23] J.S.Ahn, "The effectiveness of family resilience-based group program for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M.A.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7. Online Source.
- [24] H.J.Choi, "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of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7. Online Source.
- [25] A.P.Dempster, N.M.Laird, and D.B.Rubin, "Maximum Likelihood from Incomplete Data via the EM Algorithm,"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Vol.39, No.1, pp.1-38, 1977.
- [26] R.R.Abidi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9, No.4, pp.298-301, 1990.
- [27] H.W.Lee, "A Study of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Disturbances & Learning Disabilities, Vol.18, No.3, pp.327-349, 2002.
- [28] F.Walsh, "Beliefs, Spirituality, and Transcendence: Keys to Family Resilience," pp. 62-77, in Revisioning Family Therapy: Race, Culture, and Gender in Clinical Practice, edited by M. McGoldrick.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29] M.O.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f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8, pp.9-23, 2001.
- [30] H.S.Choi and O.B.Jung,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Focusing o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12, No.1, pp.55-67, 2005.
- [31] B.M.Byrn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EQ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Routledge, 2013.
- [32] P.EShrout, and N.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p.422-445, 2002.

최 장 원(Jang-Won Choi)

[종신회원]



- 2005년 2월 :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MBA 졸업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4월 : 덕인복지재단 대표 이사
- 2010년 9월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2022년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론

장 대 연(Daeyeon Jang)

[정회원]



- 2017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20년 1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 2021년 3월 ~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강사
- 2020년 2월 ~ 2022년 1월 : 미래포럼 사무국장
- 2018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스마트폰 중독, 가족기능, 부부치료, 의사소통 기술